

지혜자의 자기성찰

-잠언 30장 숫자잠언의 수사학-¹⁾

유선명*

들어가는 말

잠언서는 오랜 기간 개별 잠언들의 수집과 편찬 작업을 거쳐 현재의 정경적 형태로 다듬어졌다.²⁾ 잠언 1-9장(솔로몬 선집)과 25-29장(솔로몬 시대에 기원을 둔 히스기야 선집)에 비교하면 잠언 30장은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주제를 식별하기 어려운 잡다한 격언 뭉치로 보인다. 30장 초두에 있는 **אָנֹכִי אֲבִיר בְּיָגֶר בְּכֹחַ הַמִּשְׁאָה**라는 어구 역시 그 적용범위와 의미가 확실하지 않다. 그것이 표제인 것은 분명해 보이지만 어휘들의 의미나 구문상의 모호성으로 인해 “마싸족 야케의 아들 아굴의 어록,” 혹은 “야케의 아들 아굴의 어록: 신탁(oracle)”으로 해석이 나뉜다. 아굴의 어록이라는 수집물의 범위 역시 확실하지 않다. 학자들은 잠언 31:1에 나오는 또 다른 표제어구인 **דְּבַר־לְמוּאֵל מִלֶּךְ מִשְׁאָה** 직전까지를 30장의 경계선으로 보는 데는 의견이

*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조교수, 구약학

1) 이 논문은 2016년 백석대학교 연구비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2) 잠언서 전체의 편찬(사)에 관한 논의는 R. N. Whybray,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 JSOTSup 168 (Sheffield: JSOT, 1990)을 참조하라. 간략하지만 더 최근의 연구를 반영한 Michael V. Fox, “Essay 5. The Growth of Wisdom,” in *Proverbs 10-31*, AB (New York: Doubleday, 2009), 923-933도 유용하다. Whybray, *The Book of Proverbs: A Survey of Modern Study* (Leiden: Brill, 1995)는 보다 포괄적으로 잠언연구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일치하지만 30장의 총 33절 중 아굴의 어록범위에 대해서는 (1) 맥케인은 1-4절; (2) 팩스는 1-9절; (3) 클리포드는 1-10절; (4) 머피는 1-14절; (5) 월키는 33절 전체로 분석해 단락구분에 있어 큰 차이를 보여준다.³⁾ 그들이 제시하는 분할의 기준 역시 내용의 통일성과 편집의도 등 정성적인 척도여서 30장의 구조는 정설을 논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⁴⁾

다만 학자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부분이라면 (1) 1-9절의 내용이 다른 부분에 대해 문예구조와 내용상 더 통일성이 있고; (2) 나머지 부분에서 유의미한 문예구조는 단계적 숫자잠언(graded numerical sayings)이며; (3) 숫자잠언들은 사물의 질서를 파악하려는 지혜전승의 인식론을 반영하는 도 구라는 점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 숫자격언 그룹이 전체로서 일관된 의미를 전달 할 가능성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 머피의 평은 회의적 입장을 잘 대변하고 있다: “이들 잠언들을 해설하기 위해 상당히 긴 지면이 필요한 것은, 본래 이 잠언들이 독자를 어리둥절하게 만들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 본문을 애써 숙고해도 좀처럼 그 의미를 드러내지 않는다.”⁵⁾ 본 논문은 머피가 진단한 지점에서 시작해 15-31절의 숫자잠언 선집(collection)을 숙 고하고 그 의미를 드러내려는 시도이다. 이 선집 전후로 10-14절은 “이러저

3) William McKane, *Proverbs: A New Approach*. OTL (London: SCM, 1970); Michael V. Fox, *Proverbs 10-31*, AB (New York: Doubleday, 2009); Richard Clifford, *Proverbs*. OTL (Louisville, KY: WJK, 1999); Roland Murphy, *Proverbs*, WBC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8); Bruce Waltke, *Proverbs 15-31*,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4) 아굴 어록에 관한 기본 연구로 Paul Franklyn, “The Saying of Agur in Proverbs 30: Piety or Scepticism?,” *ZAW* 95 (1983), 229-252; Rick D. Moore, “A Home for the Alien: Worldly Wisdom and Covenantal Confession in Proverbs 30,1-9,” *ZAW* 106 (1994), 96-107. 최근 국내 연구로는 유선명, “아굴의 교훈과 겸손의 신학: 잠언 30:1-9,” 『백석신학지널』 27 (2014), 277-289; 김희석, “잠언 30:1-9의 해석과 신학적 함의,” 『신학지남』 321 (2014), 7-35를 참조하라. 아굴의 지혜영성은 부와 지혜 간의 가치평가 문맥에서 잘 드러난다. 유선명, 『잠언의 의 연구』 (서울: 새물결플러스, 2017), 169를 보라.

5) Murphy, *Proverbs*, 237-38.

러한 무리/세대가 있다”라는 별개의 형식으로 편집되어 있으며 32-33절은 숫자잠언과 무관한 개별잠언들이므로 위의 경계선이 타당하다 인정된다.

1. 숫자잠언의 형태와 의미분석

잠언 30:15-31이 무작위에 가까운 난잡한 격언 무더기가 아니라면 편집의 논리를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가장 유력한 단서는 숫자이다. 이 장 내에서 숫자잠언 그룹 밖에 있는 여타 잠언들조차도 숫자적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7-9절에서 아굴은 하나님께 두 가지를 요청하며, 11-14절은 문제투성이인 세대 넷을 (혹은 네 번을) 지목한다. 이러한 숫자적 표지는 이 장 내의 숫자잠언들과 비-숫자 잠언들의 현재 배열에 내적 통일성을 부여하는 통합선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숫자들의 배치에 주목해 분석하면 30:15-31은 아래와 같이 나뉜다.

- 비숫자잠언 I (15a): 거머리를 풍자함
- 숫자잠언 I (15b-16): 만족을 모르는 것 “서넛”
- 비숫자잠언 II (17): 불효자를 질책함
- 숫자잠언 II (18-19): 헤아리기 어려운 것 “서넛”
- 비숫자잠언 III (20): 음녀를 비난함
- 숫자잠언 III (21-23): 험오스러운 것 “서넛”
- 숫자잠언 IV (24-28): 작지만 지혜로운 것 “넛”
- 숫자잠언 V (29-31): 위풍 있는 것 “서넛”

위의 숫자잠언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분류된다. 첫째는 숫자 하나만을 제시하고 대상들을 나열하는 “단순나열 잠언”으로 30장에서는 숫자잠언 IV (24-28절)가 그 예이다.

숫자잠언 IV (24-28절):

땅에서 작고도 슬기로운 것 넷이 있네
힘은 없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는 개미
허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짓는 오소리
왕이 없어도 질서 있게 행진하는 메뚜기
곧 잡힐 것 같아도 여전히 왕궁에 사는 도마뱀⁶⁾

위 잠언군의 도입부에는 넷(4)이라는 숫자가 제시되고 뒤에는 그 숫자와 일치하는 네 종류의 동물이 열거된다. 이러한 단순나열 형태는 히브리성경에서 흔치 않으며⁷⁾ 잠언 30장 전체의 수사적 호소력에 대한 기여도 역시 낮다.

두 번째는 “단계숫자 잠언”으로 N // N+1 의 구조를 갖는다. 숫자잠언 II(18-19절)와 III(21-23절), 그리고 V(29-31절)이 이에 해당한다:

숫자잠언 II (18-19절):

너무 기묘하여 이해할 수 없는 서너 가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바위 위에 기어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

숫자잠언 III (21-23절):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것 서너 가지:
종이 임금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 받던 여인이 시집가는 것
(그리고) 여종이 여주인을 제치는 것!

6) 이하 인용되는 성경본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필자의 개인번역임.

7) Fox, *Proverbs 10-31*, 863.

숫자잠언 V (29-31절):

당당한 걸음으로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넛:
 짐승 중 적이 없어 물러나지 않는 사자
 사냥개와 수염소, 그리고 당할 자 없는 왕

위의 세 잠언군이 다 서넛 (3 // 3+1) 이라는 계수 형태를 갖는데, 열거되는 항목은 네 개이며 마지막 개체에 수사적 초점이 놓이게 된다. 고대근동 문헌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이 단계숫자 잠언들에 관해서는 오스털리, 겐제, 알트, 맥케인, 플뢰거, 마인홀트 등의 연구들이 해석의 기초를 놓았으며⁸⁾ 근래에는 로쓰와 하란의 연구가 그들의 구조와 의미에 대해 잘 조명해주고 있다.⁹⁾ 와이브레이는 이들 잠언들의 의미를 오락(entertainment), 관찰(observation), 교육(education), 사색(reflection)의 네 단어를 들어 설명한다.¹⁰⁾ 숫자잠언들의 근원이 사물을 질서있게 분류하려는 과학적 사고에 있으며 그 내용에서 별다른 도덕적 의도는 검증되지 않는다는 로쓰의 입장은 지지하기 어렵다.¹¹⁾ 팍스의 통렬한 지적처럼, 숫자잠언은 당대의 기준으로도 별다른 새 지식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잠언의 일반적 성향이 그러하듯이 이들 숫자잠언 역시 자연계와 도덕체계의 유비를 통해 “암묵적 도덕담론”을 제시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¹²⁾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동물세계의 기이함과 음녀의 언행을 연관지음으로써 잠언 본문이 동물세계와 인간세계간의 다리를 놓는다는 김정우의 관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¹³⁾

8) 이들 선행연구의 요약은 Whybray, *Survey*, 91-98을 참조하라.

9) Wolfgang M. W. Roth, *Numerical Sayings in the OT*, VTSup 13 (Leiden: Brill, 1965); Menachem Haran, “The Graded Numerical Sequence and the Phenomenon of ‘Automatism’ in Biblical Poetry,” *Congress Volume: Uppsala, 1971*, VTSup 22 (Leiden: Brill, 1972).

10) Whybray, *Survey*, 98.

11) Roth, *Numerical Sayings*, 21.

12) Fox, *Proverbs 10-31*, 863.

13) Jungwoo Kim, “‘Clusters of Jewels’ or ‘Grains of Sand Scattered All Over’?: An Editorial Approach to the Book of Proverbs,”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21 (2013), 9.

세 번째는, N // N+1 의 형태는 갖지만 내용상으로는 단순열거 잠언에 가까운 혼합형 잠언군으로, 본문에서 숫자잠언 I (15b-16)이 이에 해당한다.

숫자잠언 I (15b-16절):

만족을 모르고 배부르다 하지 않는 서녘이 있네
스올, 아이 못 갖는 태
물로 채우지 못할 땅,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이 숫자잠언은 N // N+1 (“서녘”)의 숫자표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항목에 강조점이 주어지지 않아 내용상으로는 단순나열 잠언에 가까운 혼합형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잠언의 독자가 숫자잠언의 수사학적 의도를 더 자세히 탐구할 필요성에 동의한다면,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해석장치를 찾아보아야 한다. 숫자잠언에 나열된 개체들 간에 특별한 계층구조가 있는가? 잠언 30장 내에 배열된 숫자잠언들에 인접한 다른 진술들은(잠언으로 분류되든 그렇지 않든) 어떤 수사적 연결기능을 하고 있는가? 와이브레이는 숫자잠언들에 (15b-16, 18-19, 21-23, 29-31) 연결된 15b, 17, 20, 32-33절은 숫자잠언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붙어 있으며 그 뜻이 “특별히 모호하다”고 평가한다.¹⁴⁾ 본 필자의 눈에는 그가 30장을 숫자잠언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비-숫자잠언은 편집자들이 숫자잠언의 단위들을 접합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더해진 잉여요소라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들 비-숫자잠언이 숫자잠언들 그룹 사이에 어정쩡하게 배치된 잡다한 글 이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필자는 이들 비-숫자잠언들이야말로 숫자잠언들이 펼쳐놓은 수사적 무대의 주연배우라고 본다. 단순하고 지루한 나열행위에 그칠 수 있을 숫자잠언의 내용에 극적인 재미와 색깔을 입히고 독자의 주의를 집중시키는 지점에 비-숫자잠언이 위치하기 때문이다. 15a를 예로 보자.

14) Whybray, *Survey*, 97.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네 (15aα)

쥬, 쥬! (15aβ)

이 잠언이 과연 거머리의 새끼가 어미를 빨아먹는다는 관찰 혹은 속설에 근거한 것인지, 그런 묘사가 거머리라는 종에 관한 생물학적 지식과 부합하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 일부 학자들의 제안처럼 거머리의 흡반같은 돌출구조를 “딸”이라고 비유적으로 불렀다 해도 거머리를 의인화해서 세대간 갈등 혹은 부모를 등쳐먹는 자식이라는 암묵적 연관성을 제시하는 것이 이 격언의 의도라면 15절은 바로 이어지는 16-17과 주제상으로는 숫자의 연속성에서나 (2 → 3 / 4) 견고한 이음새를 만들어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미지의 생동감 면에서 탁월한 도입부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17절을 보라:

아비를 조롱하는 눈

어미의 가르침에¹⁵⁾ 불순종하는 눈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떼가 먹어버리기를!¹⁶⁾

이 글에 의미가 모호할 것이 있는가? 부모에게 감사할 줄 모르고 반항이나 하는 몫쓸 자식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생생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 점에서 20절도 다르지 않다:

음녀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다 먹고 나니 입을 흠쳐내고선

“내가 뭘 했다고?” 말하네...

15) MT תִּבְרָא (절대형 תִּבְרָא? 가르침; LXX γῆρας 연로함). 잠언을 비롯한 지혜전승에서 고령은 명예와 지혜를 함축한다. 잠 16:31; 20:29 참조.

16) MT אֲכָלָהּ를 단순미완료 대신 회구의 의미로 해석함. JMK §113n; IBHS §31.4h; J. C. L. Gibson, *Syntax*, §64(c). 이 독법에 따르면 기존질서의 손상이나 파괴에 적대적이었던 이스라엘 지혜자들의 보수성이 잘 드러나 보인다.

20절이 적당히 첨가된 경구라고 볼 수 있는가? 20절이야말로 18-19절에 열거된 행동들의 정점에 서 있다. 새가 날고 뱀이 기고 배가 다니고 남녀가 함께하고 ... 사라져 버린 자취(“길” 데렉)에 대한 탄식은 20절에 와서야 분명한 초점을 보여준다. 바로 음란한 여인의 뻔뻔한 태도이다. 지혜자의 멸시가 음행 그 자체를 향하고 있는지, 음행이 비유적으로 가리키는 영적 타락 내지 명확한 혼합종교 현상을 향했는지는 이 수사적 분석의 논지와는 무관하다. 중요한 것은 비-숫자잠언들이 숫자잠언군의 수집물로서의 잠언 30장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따라서 그들을 각 숫자잠언과 통합해 다루어야 이 장의 저자 혹은 편집자의 의도가 제대로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2. 사회격변과 지혜자의 반응

벤레이븐은 1986년 출간된 논문을 통해 이들 숫자잠언과 관련한 중요한 해석장치를 제공했다. 벤레이븐이 ‘천지개벽 상황’ (World Upside Down: 약어로 WUP)이라 명명한 사회격변은 고대근동문헌에서 널리 쓰이는 문예적 무대(*topos*)이다. 잠언 30:21-23의 의미체계는 우주적 질서와 사회질서 간에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세계관과 맞물려 있다. 사회질서의 동요를 우주적 질서의 교란으로 묘사하는 기법은 지혜전승 특유의 진지한 성찰의 결과물로서, 토이와 맥케인이 동일한 본문을 일종의 농담으로 이해한 것과는 매우 다른 접근법이다.¹⁷⁾ 벤레이븐은 WUP를 사회적 층서구조의 현 상태 (*status quo*)로 유지하기 원하는 보수성을 지닌, 왕권주의 관점의 산물로 이해하고 이들 격언들이 “신적 기원을 갖는 우주적·사회적 질서가 반역적 사고를

17) 이 잠언군을 Toy는 “humorous or whimsical”이라 묘사하고 (*Proverbs*, ICC [Edinburg: T.&T. Clark: 1899], 532), 맥케인은 풍자(satire)라고 부른다 (McKane, *Proverbs*, 659).

분쇄하기 원하는 염원을, 그 상징물들을 통해 표현하고 있다”고 서술한다.¹⁸⁾

필자의 판단으로는 벤레이븐의 해석 프레임은 21-23절을 넘어 30:15-31의 숫자잠언군 전체에 적용 가능한 잠재력을 갖고 있다. 다만 현 상태의 유지를 원하는 (지혜자의) 보수성향을 곧바로 정치적 이념으로 연결시킨 벤레이븐의 해석은 지나치게 상투적이다. 잠언에 반영된 지혜의 태도를 보수주의라 부른다면 그것은 전통적 가치관을 존중하는 지혜전승의 결과로서의 사상적 보수주의이지 특정한 왕조나 지배구조를 보호하는 의미에서의 정치적 보수주의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점을 반영한 “수정판” 천지개벽론은 숫자잠언들의 의미를 역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유용한 틀이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분석을 아래에 제시한다.

[15-17절] 감사를 모르는 자의 몫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네
 쥐, 쥐!
 만족을 모르고 배부르다 하지 않는 서넛이 있네
 스을, 아이 못 갖는 태
 물로 채우지 못할 땅, 족하다 하지 않는 불
 아버를 조롱하는 눈
 어미의 가르침에 불순종하는 눈
 골짜기의 까마귀가 쪼아먹고
 독수리떼가 먹어버리기를!

앞서 서술했듯이, 형태만 고려하면 15b-16만이 단게 숫자잠언이지만 (“서넛” 3/3+1), 그 앞에 있는 15a “거머리” 격언이 “서넛”과 순열적 관계에 있는 2개의 개체를 언급하고 있고, 내용상으로도 만족해하지 않는 탐욕스런 존재라는 모티프의 연결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나의 문단으로

18) Raymond Van Leeuwen, “Proverbs 30:21-23 and the Biblical World Upside Down,” *JBL* 105 (1986), 609.

다루어 분석한다. 17절은 15-16절에서 진술된 내용, 즉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들의 불합리성을 향한 의분이 향하는 수사적 목표지점을 드러내 주어 이 문단의 결론부를 구성한다. 여기 열거된 항목들의 성격을 가장 잘 요약한 단어는 스올이다.¹⁹⁾ 히브리 세계관에 따르면 스올은 죽은 자의 행선지이다. 그곳에서 무엇이 일어나는 지는 분명하지 않다. 스올은 이승에서의 삶에 대한 도덕적 판단과 무관하게 모든 망자가 가는 곳이며, 그곳에서 대기 기간을 거친 후 어디로 간다는 개방성이 없는 비가역적 종착지이다.²⁰⁾ 여기 본문에 언급된 개체들이 공유하는 특성은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바꾸지 않는 저돌성과 맹목성이다. 저승에 갔다 이승에 돌아온 이가 없고 저승에서 무언가 창조적 생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저승은 끝없이 인구를 늘리고 지배 영역을 넓히는 맹목적 자기확대에 몰두한 개체이다. 불임상태의 자궁은 남편의 몸이 애써 생산한 난자와 정자를 자신 안으로 받아들이기만 할 뿐, 아이를 만들어 내보내지 않는다. 거머리는 생명력의 상징인 피를 빨아들 뿐 유익한 보상을 주지 않는다. 팔레스틴의 거친 땅은 우기에 내린 빗물도 잠시일 뿐 늘 메말라 작물을 내지 않는다. 들불은 자신의 행로에 있는 모든 것을 태워 없앨 뿐 무언가를 만들어내지 않는다.²¹⁾

이러한 자연현상과 사물들을 언급하는 것은 당연히 그 뒤에 이어질 도덕적 교훈에 방점을 찍기 위해서이다. 15-17절의 낭비적 존재들과 견주어 볼 때 부모의 은공을 모르는 못된 자식을 향한 17절의 일침은 “이런 자식은 마치 위에 언급한 것들 마냥, 그 이상으로, 쓸모없는 존재이다”라는 뜻일 것이다. 부모의 인생을 녹여 쏟아 부은 희생과 투자가 다 헛되고 말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조롱하는 자식은

19) 히브리어 **שׂוֹל**은 “음부”나 “명부”등 의역보다는 “쇄울”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개역(개정)에서 사용된 “스올”의 음성표기가 익숙하므로 여기 채택한다.

20) 따라서 스올은 기독교 신학의 범주인 천국이나 낙원 혹은 지옥 중 어느 것에도 일치하지 않는다. 아마도 현대 한국어 용법에서 구약성경의 스올에 가장 근접하는 개념을 갖는 단어는 저승일 것이다.

21) 거머리를 이용한 치료요법이나 들불의 생태학적 유익은 이 잠언들이 전제하는 당시의 일상과 상식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간주한다.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는 정서가 당연시되었다. 제대로 된 장례를 치러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것은 이스라엘 뿐 아니라 고대근동 문명권에 두루 나타나는 “불행한 종말”의 대표적 케이스이고, 사람을 저주할 때 쓰는 상투적 표현이기도 했다.

[18-20절] 수치를 모르는 자의 행로

너무 기묘하여 이해할 수 없는 서너 가지: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취
 바위 위에 기어 다니는 뱀의 자취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취
 남자가 여자와 함께 한 자취
 음녀가 가는 길도 마찬가지로
 다 먹고 나니 입을 훔쳐내고선
 “내가 뭘 했다고?” 말하네...

이 단락에 언급된 모든 항목은 **קִטְוָה**(테렉 = 길, 자취)이라는 핵심어를 따라 배열되어 있다. 새가 하늘을 가른 궤적(테렉), 뱀이 바위 위를 기어간 족적(테렉), 바다를 헤치고 나아간 배의 항적(테렉), 그리고, 남자의 몸이 여인의 몸을 지나간 흔적(테렉), 이것들은 모두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전제가 필자와 독자 간에 공유되고 있다. 증거와 자취가 남지 않는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실 여기 나열된 자연현상들은 특별하거나 대단한 일들이 아니다. 무엇이 그리 놀라운가? 새와 뱀, 바다의 배가 지나간 흔적이 안 보인다는 것이 그렇게도 기이하고 신비로운 일인가? 여기서 말하는 놀라운 경악과 혐오의 정서를 담고 있다. 이 잡언군이 묘사하려는 진정한 핵심은 “서너 가지”를 언급한 격언의 마지막 항목인 간음한 여인이 “입을 씻는” 모습이기 때문이다(20절). 그 무언가를 맛나게 포식하고서는 번들거리는 “입”을 훔치며 “내가 뭘?” 하고 말하는 여인. 이것이 바로 경악과 혐오의 근원인 것이다.²²⁾

자연계의 현상은 인정/불인정의 범주가 통용되지 않는다. 자연이란 말 그대로 그저 그러한 것일 뿐이다. 오직 인간만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인정/불인정의 선택권을 가졌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을 부인하면 가책을 느끼는 (최소한 그리 해야 마땅한!) 존재이다. 결국 이 잠언그룹의 진정한 관심사는 성적 교섭의 정당한 범위를 어기고도 마음이 굳어 가책조차 느끼지 않는 인물들에게 있으며, 저지는 그들의 뻔뻔스러움에 대한 혐오감을 기이함과 깨달을 수 없는 신비로움의 대상들에 잇대어 표현하는 뛰어난 풍자의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21-23절] 봐주기 어려운 꼴사나운 군상

세상을 뒤흔드는, 세상이 감당 못할 것 서너 가지:
 종이 임금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미움받던 여인이 시집가는 것
 (그리고) 여종이 여주인을 제치는 것!

세상(땅)이 진동하고 건디지 못하는 일들이 무엇인가? 일차적으로 기존질서의 격변이다. 종이 임금 되는 것,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 꺼림을 받던 여인이 시집간 것, 계집종이 여주인을 밀어낸 것 등이다.²³⁾ 이 각각이 나름대로 혐오의 대상(히, 토에바)이 되겠으나 특별히 맨 마지막 항목이 그 중에서도

22) 여성 성기를 입에 빗대고 성행위를 먹는다고 표현하는 것은 굳이 학적인 주석이 필요하지 않은 만국공통의 완곡어법이겠으나, 유대교 해석전승에도 동일한 이해가 기록되어 있다. Rosenberg는 본 절이 성행위를 암시한다는 근거로 라쉬(Rashi)를 재인용하고 있다. Rosenberg, *Proverbs*, Soncino Books of the Bible, rev. ed. [London: Soncino, 1985], 205.

23) MT שָׁרֵיטָה 이 어근은 보통 “계승하다”는 뜻이지만 드물게 “몰아내다”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LXX ἐξβάλῃ “밀어내다”가 어떤 저본(Vorlage)에서 도출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으나 MT와의 상관성이 충분하고 문맥에 적합하므로 여주인을 밀쳐냈다는 번역의 타당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최악의 경우일 것이다. 이것이 잠언 저자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었던지의 여부는 분명하지도 중요하지도 않다. 잠언은 그것을 대하는 모든 이의 경험을 아우르고, 모든 이의 잠재적 경험 가능성을 대리하는 성격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 잠언이 기존 질서를 깨고 신분의 상승을 이룬 사람에 대한 일반적 질서의 감정을 나타낸다고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 뒤에(24-31절) 이어지는 왕궁 정치의 문맥을 고려한다면²⁴⁾ 권력의 추구에서 온당치 않게 권력을 탈취한 자들을 향한 매서운 질책으로 읽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24-28절] 생존자들

땅에서 작고도 슬기로운 것 넷이 있네:
힘은 없지만 여름에 양식을 쌓는 개미
허약하지만 바위 사이에 집짓는 오소리
왕이 없어도 질서 있게 행진하는 메뚜기
곧 잡힐 것 같아도 여전히 왕궁에 사는 도마뱀!

24-28절은 연약하지만 생존력이 뛰어난 동물들을 묘사하고 있다. 개미는 잠언 6:6-8에서 앞일을 대비해 일하는 지혜와 근면함의 모본으로 인용되었

24) 왕궁의 관료체계가 지식/지혜의 요람이 되었다는 고전적 이론은 종종 과장된 바가 있고 새로운 사료들을 반영해 수정 보완되어야 하겠지만, 지혜문헌과 잠언의 태생 특히 기록된 문서로서의 잠언서의 전승과 관련해서 왕궁의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인정된다. 지혜전승의 솔로몬 시대 배경, 특히 이집트 왕실배경과 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R. B. Y. Scott, "Solomon and the Beginning of Wisdom in Israel," 262-79 in *Wisdom in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VTSup 3 (Leiden: Brill, 1955); Glendon E. Bryce, *A Legacy of Wisdom*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9); 왕실배경을 포함한 고대근동 지혜자의 생성과 역할에 관한 비교연구서로 John Gammie and Leo Perdue,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이스라엘 전승 담지자들의 비교연구로 Joseph Blenkinsopp, *Sage, Priest, Prophet: Religious and Intellectual Leadership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KY: WJK, 1995); 이스라엘 초기 지혜전승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연구로 Stuart Weeks, *Early Israelite Wisdom* (Clarendon: Oxford, 1994)을 참조하라.

고, 여기 25절에서는 협력하는 모습이 부각된다. 사반은 바위틈에 잠자리를 마련해 자기보다 덩치가 큰 포식자들을 피한다. 메뚜기들은 통솔하는 왕이 없어 보이는데도 정연하게 무리를 지어 움직인다. 메뚜기 떼의 위력이 어떤 인간의 군대 못지않다는 것은 팔레스틴 땅의 농부에게는 현실적인 지식이었다. 지혜자는 각자로서는 보잘 것 없는 메뚜기들이 질서있게 무리를 지어 한 목표를 공격하는 능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들이 지혜롭다는 24절의 MT **יָחִידִים יָחִידִים**은 그 지혜가 이미 주어진 것 즉 본능적인 것을 나타내기 위한 의도적 표현으로 보인다. 팩스는 이 지혜를 “본성에서 유래하는 지혜 (wisdom of nature)”라고 부르면서 “지성을 통한 학습이 가능한 인간은 그보다 한결 더 지혜로와야 하지 않는가”라고 찬평한다.²⁵⁾

그러나 수사적 입장에서 LXX, Vul, 그리고 BHS note에서 제안하듯 **יָחִידִים יָחִידִים**으로 읽는 것이 더 나아 보인다. 이 독법을 따르면 숫자잠언을 지은 현자들은 이 연약한 동물들을 “소위 지혜롭다는 자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특정한 숫자잠언 혹은 더 나아가서 잠언 30장의 숫자잠언군의 초점이 자연예찬에 있지 않다면, 이러한 레토릭은 질서가 망가지고 윤리가 땅에 떨어진 “천지개벽상황”에서 인간들 중 뛰어나다는 이들조차 이들 “미물들”만도 못하게 행동하는 현실에 대한 씩씩한 자조를 띄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서 인간들 중 최상이랄 수 있는 자신들(현자들)이 온당한 질서 속에서라면 당연히 왕들의 주변에서 지혜로운 조언을 제공해야 했겠지만 이제는 일찌감치 치위졌어야 마땅한 “도마뱀”들에 의해 차단되어 있으니 그 짐승들이 현자들보다 더 똑똑한 셈이라는 자조와 한탄이기도 하다. “왕이 없어도(26)”란 표현도 그와 같은 난맥상을 마주한 현자들의 현실인식을 드러내는 단서가 되고 있다.

25) 팩스는 이 입장을 나흐미아스(Nachmias)와 사디아(Sa'adia) 등 유대인 해석가들의 오랜 전승에서 도출한다. Fox, *Proverbs 10-31*, 879.

[29-31절] 왕의 권세

당당한 걸음으로 위풍있게 다니는 것 서녘:
 짐승 중 적이 없어 물러나지 않는 사자
 사냥개와 수염소, 그리고 당할 자 없는 왕²⁶⁾

이 단락은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존재들을 언급한다. 이 숫자잠언은 3 // 4 의 구성에서 앞의 셋에 비해 마지막 구성요소가 현저하게 이질적인 점에서 눈에 띄며, 먼저 나오는 세 동물들의 목록과 순서 역시 얼핏 명쾌하지 않아 보인다. 사자는 당연히 어떤 짐승 앞에서도 굽히지 않는다. 굽힐 필요가 애당초 없는 절대강자이기에. 그러나 그 후에 언급된 동물들은 힘의 우월함보다는 위협스러운 고집으로 자신의 위치를 지켜내고 있어 보인다. 사냥개는 자기보다 크고 강한 맹수에게 달려든다. 수염소 들이 외길에서 만나면 둘 다 떨어져 죽을지언정 먼저 뒷걸음치지 않는다. 그리고나서야 마지막 개제인 “당할 자 없는 왕”이 등장한다. 마치 현자들이 보기에는 왕이란 사자, 사냥개, 수염소 뒷자리에나 둘 만큼 무력함과 과도한 자의식의 불균형적 존재라는 듯, 자신보다 약한 백성 위에 군림하다보니 격변하는 시대를 읽지 못하고(천지개벽) 무모한 행동으로 나라의 존망을 위협하는 어리석은 유다의 제왕이 풍자되고 있다.

잠언이 동물을 비롯한 자연세계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은 자연에 빗대어 인간사를 논하기 위해서이다. N // N+1 의 형태를 갖는 단계 숫자격언의

26) MT 본문은 보존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 절에는 해석의 난점이 많다. **אֵלֶּיָא וְיִרְאֶה**은 종종 수탉으로 이해되지만 랍비 문헌들에는 까마귀나 독수리등 다른 새들도 언급되었다. LXX 일부 사본과 Delitzsch는 사냥개로 해석한다. “당할 자 없는 (왕)”으로 옮긴 **אֵלֶּיָא**은 BHS note의 제의처럼 동방계 사본(Or.)을 따라 *'al qum*으로 분절하고 jussive (“왕, 아무도 맞서지 못하리”)의 문맥을 고려해 “당할 자 없는 왕”으로 이해할 수 있다. 파스는 *'al qom* (부정사 절대형 infinitive absolute)로 읽고 부정사에 명사와 동일한 구문적 기능을 부여해 (“왕, 맞섬-없는”) 동일한 해석에 도달한다. Fox, *Proverbs 10-31*, 881.

수사적 전략이 맨 마지막 항목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문예적 관찰은 이 단락의 마지막 항목이 “당할 자 없는 왕”이란 사실과 잘 부합한다. 본문은 강자 앞에서 약자인 양 하면서도 뛰어난 정치적 생존력을 보여주는 도마뱀 같은 무리들, 그리고 신하들 앞에서 큰소리치는 추장 내지 족장의 위치를 가진 자들에 관한 풍자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권력이 아닌 사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은 꼬리를 잘라주고 도망치는 도마뱀의 비굴함이나 가슴을 두드리는 고릴라의 허장성세 없이 담담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나가는 말

이 연구에서 필자는 숫자잠언 해석에 유용한 도구를 제공한 WUP(천지개벽) 프레임을 벤레이븐이 수행한 본래의 분석범위인 21-23절을 넘어 15-31절의 숫자잠언 전체를 대상으로 하면서 보다 유연하게 확대 적용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숫자잠언, 특히 단순열거 형태의 숫자잠언은 질서와 조화를 유지하는 시스템을 묘사한다. 그러나 잠언 30장의 숫자잠언들은 본질적 변화와 혼돈을 맞은 시대의 위기상황들 즉 가족의 파탄(15-17절), 성도덕의 문란(18-20절), 신분질서의 위협(21-23절), 공직의 타락(24-28절), 왕도의 실추(29-31절)를 무대(*topoi*)로 설정하고 그것을 배경으로 해 지혜자들의 자조적 성찰을 표현하고 있다. 숫자잠언 전후의 문맥, 즉 아굴의 경건한 고백과 기도의 언어(1-9절), 르무엘 모친의 전통적 귀족주의(31:1-9), 현숙한 여인 찬가의 질서와 조화로움(31:10-31)에 비할 때 이러한 어조의 독특함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잠언 30장에 드러난 자조적 성찰의 정서는 지혜와 지혜자의 가치에 대한 회의를 수반하는 것으로, 지혜의 길을 추구하면 도덕성과 현명함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는 잠언서 전체의 낙관적 태도와는 뚜렷이 구별된다. 잠언서 내의 이러한 비균질성은 잠언의 전승사 및 구조적 복잡성의 산물인 동시에,

전통적 신념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인(denial)과 공황(panic)에 빠지는 대신 균형감각과 위트를 잃지 않고 어지러운 현실을 직시하는 참된 지혜자의 모습을 부각시켜준다.

<주요어>

잠언, 숫자격언, 사회격변, 양식비평, 아굴

<Key words>

Proverbs, numerical saying, social upheaval, form criticism, Agur

* 접수일 2017년 3월 19일, 수정일 2017년 3월 26일, 게재 확정일 2017년 4월 1일

참고문헌

- 김정우, 『잠언』,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7.
- 김희석, “잠언 30:1-9의 해석과 신학적 함의,” 「신학지남」 321 (2014), 7-35.
- 유선명, “아굴의 교훈과 겸손의 신학: 잠언 30:1-9,” 「백석신학저널」 27 (2014), 277-289.
- 유선명, 『잠언의 의 연구: 신학적, 윤리학적, 비교문화적 고찰』, 서울: 새물결 플러스, 2017.
- 주옹-무라오까, 『성서 히브리어 문법』 김정우 역, 서울: 기혼, 2012. [JMK]
- Blenkinsopp, Joseph, *Sage, Priest, Prophet: Religious and Intellectual Leadership in Ancient Israel*, Louisville, KY: WJK, 1995.
- Bryce, Glendon E., *A Legacy of Wisdom*, Lewisburg, PA: Bucknell University Press, 1979.
- Clifford, Richard, *Proverbs*, OTL, Louisville, KY: WJK, 1999.
- Fox, Michael V., *Proverbs 10-31*, AB, New York: Doubleday, 2009.
- Franklyn, Paul, “The Saying of Agur in Proverbs 30: Piety or Scepticism?,” *ZAW* 95 (1983), 229-252.
- Gammie, John and Leo Perdue, *The Sage in Israel and the Ancient Near East*,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 Gibson, John C. L., *Davidson's Introductory Hebrew Grammar: Syntax*, Edinburgh: T. & T. Clark, 2000. [*Syntax*]
- Haran, Menachem, “The Graded Numerical Sequence and the Phenomenon of ‘Automatism’ in Biblical Poetry,” *Congress Volume: Uppsala, 1971*, VTSup 22, Leiden: Brill, 1972.
- Kim, Jungwoo, “‘Clusters of Jewels’ or ‘Grains of Sand Scattered All Over?’: An Editorial Approach to the Book of Proverbs,” *Chongshin Theological Journal* 21 (2013), 3-21.
- McKane, William, *Proverbs: A New Approach*, OTL, London: SCM, 1970.
- Moore, Rick D., “A Home for the Alien: Worldly Wisdom and Covenantal

- Confession in Proverbs 30,1-9,” *ZAW*106 (1994), 96-107.
- Murphy, Roland, *Proverbs*, WBC, Nashville, TN: Thomas Nelson, 1998.
- Rosenberg, *Proverbs*, Soncino Books of the Bible, rev. ed. London: Soncino, 1985.
- Roth, Wolfgang M. W., *Numerical Sayings in the OT*, VTSup 13, Leiden: Brill, 1965.
- Scott, R. B. Y., “Solomon and the Beginning of Wisdom in Israel,” in *Wisdom in Israel and in the Ancient Near East*, VTSup 3, Leiden: Brill, 1955, 262-79.
- Toy, Crawford H., *Proverbs*, ICC, Edinburg: T.&T. Clark, 1899.
- Van Leeuwen, Raymond, “Proverbs 30:21-23 and the Biblical World Upside Down,” *JBL* 105 (1986), 599-610.
- Waltke, Bruce K. and M. O’Connor, *An Introduction to Biblical Hebrew Syntax*, Winona Lake, IN: Eisenbrauns, 1990. [*IHBS*]
- Waltke, Bruce K., *Proverbs 15-31*, NICOT, Grand Rapids, MI: Eerdmans, 2005.
- Weeks, Stuart, *Early Israelite Wisdom*, Clarendon: Oxford, 1994.
- Whybray, R. N., *The Book of Proverbs: A Survey of Modern Study*, Leiden: Brill, 1995.
- Whybray, R. N., *The Composition of the Book of Proverbs*, JSOTSup 168, Sheffield: JSOT Press, 1990.

<초록>

지혜자의 자기 성찰

-잠언 30장 숫자잠언의 수사학-

유선명

(백석대학교 신학대학원)

잠언 30:15-33은 문학적으로 매우 특별한 선집들 사이에 끼인 어정쩡한 격언 모음으로 간주되곤 한다. 아굴의 어록(30:1-9), 르무엘 모친의 가르침(31:1-9), 그리고 정교한 알파벳 시로 구성된 현숙한 여인 찬가(31:10-31)에 비교할 때 이 단락을 숫자잠언의 형태적 공통성 외에는 일관성이 결여된(머피의 평가) “사소한 어록집”(팍스)으로 부르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잠언 30:21-23의 해석맥락을 “천지개벽”이라 불리는 급작스런 사회격변에서 찾은 밴레이본의 해석은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분석이 시도되었다.

본고는 잠언 30장의 숫자잠언 전체가 알려진 것보다 더 분명한 문학적 통일성을 지니고 있으며, 사회격변 상황의 반영물로 해석가능하다고 논증한다. 통상적으로 질서와 조화를 암시하는 숫자잠언이 이 장에서는 자신들의 세계관이 도전과 조롱의 대상이 되는 현실을 대면한 지혜자들의 불편함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는데, 가족의 충성(15-17절), 성도덕(18-20절), 사회 계층(21-23절), 공적 영역의 봉사(24-28절), 그리고 왕정의 견실함(29-31절) 등 영역에서 전통적인 지혜의 가르침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비록 전도서에서 보이는 환멸감까지 가지는 않아도 잠언 30장은 잠언 전체를 지배하는 도덕적 낙관주의의 좌절 즉 사람이 지혜에 의해 의롭고

슬기로운 인격체로 빛어진다는 신념에 제동을 거는 지혜자들의 자기성찰을 담고 있다. 이 잠언들에서 감지되는 괴리감과 약간의 냉소는 이 본문 주위에 보이는 아굴의 경건, 르무엘 왕 모친의 전통적 엘리트 성향, 그리고 현숙한 여인 찬가에 드러난 고요함과 대조를 이룬다. 잠언 형성의 마지막 단계에 속한 이 수집물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신념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을 그대로 직시하며 지혜의 행보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잠언 전체의 가르침에 깊이를 더해준다

<Abstract>

Sapiential Self-reservation:

Rhetoric of the Numerical Sayings in Proverb 30

Prof. Sun Myung Lyu
(Baekseok University Divinity School)

Prov 30:15-33 as a whole is considered a loose collection of sayings that sits somewhat awkwardly between compositions that have remarkable literary features. Compared to its literary neighbors in Prov 30 namely the Words of Agur (30:1-9), the Teaching of Lemuel's Mother (31:1-9), and further the stylized acrostic poem of The Woman of Valor (31:10-31), this "miscellany of epigrams" appears to have little cohesion (M. Fox), except that they are gathered along the common form of numerical sayings (R. Murphy). R. Van Leeuwen has argued, successfully albeit with limited scope, that sayings in 30:21-23 describe abnormal situations that betray "the world upside down."

This study aims to show that Van Leeuwen's dictum can be applied to the entirety of the numerical sayings, with the implication that the sage-editor(s) behind these sayings meant to express the frustration of watching their sapiential outlook of the world being challenged and mocked to their displeasure. Couched in the form of numerical saying typically used to convey the sense of order and harmony, these sayings in the canonical shape show how the wisdom teaching is frustrated in the areas of familial loyalty (15-17), sexual morality (18-20),

social positioning (21-23), nobility in public service (24-28), and integrity of kingship (29-31).

Although it does not register disillusionment found in Qohelet, the passage nevertheless reveals ethos of self-reservation in contrast to the general optimism of Proverbs regarding the power of wisdom shaping ethical (“righteous”) and prudent (“wise”) characters. The tint of cool detachment and sarcasm in that reflection makes the passage stand out when seen in the light of the pietistic Agur, the elitism and traditionalism of Lemuel’s Mother, and the harmonized serenity of Prov 31:10-31. As a layer of final additions to the main body of proverb collection, the numerical sayings in 30:15-33 add depth to the sages’ teaching as it shows how one can look straight into the world facing the challenge to his cherished system of belief. This deserves to be called true wisdom at work.

